

'결식아동돕기' 교계 관심 확산

사찰·단체·복지관 등 잇달아 동참 새불교승가회 등 150명에 자비손길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해가 지지만 해도 몇몇 사찰과 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올해들어서는 복지관을 주축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현재 전국의 결식아동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15만명. IMF 이후 저소득 가정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 또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중 불교계가 돕고 있는 결식아동은 모두 1천5백여명에 이른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결식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불교승가회(총무원장 박광서)는 이달 들어 법주사 봉정암 등 17개 사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포스터 및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

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조계종 사 회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등 종단차원의 모금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 중앙(서울)모임은 매달 한차례 47개 가정에 밀반찬 등을 제공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매주 74개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광주모임은 매 주 월~금요일 22개 가정에 '자 비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대구모임은 10 가정을 선정해 쌀 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8월분 결식아동돕기 쌀 200kg을 덕수중 학교에 전달했으며, '자비'의 쌀 독'에 모여진 쌀은 자양복지관과 파랑새나눔터의 결식아동에게 전 달할 계획이다. 부산 삼광사(주 지 덕수)도 지난해부터 관내 결 식아동에게 장학금과 쌀을 제공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불교신도연합회(회장

한철웅)는 지난 5월 제천시를 방 문해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하는 한편, 관광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쳤다.

교계 복지관 역시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급식 지원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습지도까지 함께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옥수종합복지 관은 지난 7월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 공하고 학습지도까지 해주고 있 다. 구미복지관도 6월부터 40명 의 결식아동에게 학교로 도시락 을 배달해주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영어학습과 봉사활동 등의 소 그룹활동을 펴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월~금요 일 매일 점심 도시락을, 부산 용 호복지관은 성금을, 삼전복지관 은 장학금과 도시락을 꾸준히 지 원하고 있다.

이밖에 도관복지관, 구로복지 관, 부천 덕유복지관, 속초복지관 등 모두 25개 교계 복지관들이 모두 8백여 결식아동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어린이들 극락왕생소서"
화성 씨랜드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 13명의 49재 천 도제가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관공과 불

공 영가법문 순으로 진행된 이날 천도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신스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비롯한 유족과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극락 왕생을 발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부처님의 자비 실천해야죠"

남아공에 간 NGO 해외봉사단원 혜성스님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민촌을 방역하고, 결식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등 부처님의 자 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이 죠"

스님으로서 최초로 '한국 NGO 해외봉사단원' 자격으로 25일 남아공국으로 떠나는 혜성스님(전남 대원사)은 그 곳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설 명했다. 동국대대학원에서 사 회복지학을 공부하던 혜성스님 인 중앙일보사에서 공모했던 '제1회 한국NGO해외봉사단'

모집에 응모했던 것은 세계 인 류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보 겠다는 당찬 포부 때문. 스님은 6개월간 남아공국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NGO란 행·기아 등과 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단체입니 다. 종교인으로서 NGO에 관심 을 가져야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NGO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삼 강 조하는 스님은 또 12월에는 남 아공국에서 열리는 제3차 세



계종교의회(CPWR)에 한국불교 계 대표로서 참가한다. 혜성스님은 "종교계 NGO 가운데 하나인 세계종교의회에 한국불교계의 첫 출사표를 들 고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 자 리에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 고자 하는 한국불교계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개정 나서

문화재청에 의견서 제출... 자연공원법 개정도 요청

조계종총무원이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 및 신도종 소지자의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위해 문화재 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6 일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문화 재청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에 속 하는 문화재를 손실,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년 이상(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는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81조 (손실 또는 은닉의 죄) 3항에 신 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박물관의 도난문 화재 구입방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한편 18일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종교활동 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게는 입 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 경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날 환경부에 무료 입장 대상자를 규정한 자연공원 법 시행규칙 15조 4항 8호를 '공 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 는 신도(사찰 또는 당해 사찰의 소속대표단체가 발급한 신도증

소지자'로 개정하는 시행규칙 개 정안을 전달했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 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 돼있어 신도증 소지자의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 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복지재단이 위탁받고 부천 석왕 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원종중 합사회복지관은 연건평 728에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가을 청소년 단기보 호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양파' 치료 및 금연·약물남 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청소년 쉼터'를 개설해 지역 청소년 신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신원사 중악단 '보물관리 엉망'

곰팡이 끼고 나무 썩어 흉물스럽게 방치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된 계룡 산 신원사 중악단(보물 제1293 호)이 곰팡이가 끼고 목재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등 흉물스럽게 방 치되고 있다.

중악단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산신제단으로 궁궐 건축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과 정에서 1차적인 보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반해 중 악단의 경우 보수작업 및 보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부분은 소홀했다. 이에 따라 중악단 곳곳

에 거미줄이 즐비한 것은 물론 곰팡이가 끼고 목재부분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도굴범

대구지검, 20명 적발

대구지검 형사4부는 영남과 충 청권의 비지정문화재 수백여점을 도굴한 혐의로 성삼봉씨 등 5개 조직 2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조선시대 인신대왕대비 가 간행한 불경언해본인(진인권 공언해본)과 경남 함안군 주리사 지 삼층석탑의 석사자상 등 문화 재 10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노사화해 적극중재"

조계종 btn특위 정휴스님 위원장 사퇴

조계종 btn특위는 18일 9차 회 의를 갖고 노사 화해를 위해 적 극 중재키로 했다. 또 허문도사 장 등 불교TV 현 경영진과 만나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 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특위 위원들은 불교 TV를 방문화 이사장과 노조원들 을 각각 만나 노사가 하루빨리 화해한다던 중단을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 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구 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서는 언급 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 장직을 사퇴했다. 김주일 기자

현근스님측은 지난 6월 현 조계사로 부터 공금회령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에 고소당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현 조계사측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자고 제의했다. 한명우 기자

진관스님 보안법 위반 구속

서울지검 공안2부(박은환 부장검사) 는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추위로 열린 8.15 통일대추진 및 범민족대회 를 주도한 진관스님(불교인권이 공동 대표)을 1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관스님은 8.15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통일선 봉대장을 맡아 지난 13일부터 서울대 에서 열린 범민족통일대추진 행사를 주도한 혐의다. 김원우 기자

불교TV 노조의 허문도 사장 퇴진투쟁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불교TV 노동조합이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TV의 앞날을 밝힐 한 줄기의 빛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일고 있음을 밝힌다.

불교TV는 아다시피 IMF 세계 돌입 이후 광고료 격감 등으로 부도위기에 맞닥뜨렸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단행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는 경영진의 사태개입에 따른 방송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전 사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식투쟁과 거리에 나서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호소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불교TV가 특 정인이나 특정사찰·특정종단의 방송이 아닌 2천만 불자 모두의 방송임을 교계 내외에 알리기 위한 몸 을 던진 의사 표시였다.

이번에 불교TV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하게 된 까닭은 지난 5월 11일 대표이사에서 취임한 허문도씨 에서 기인한다. 허씨는 취임 직후 어려운 불교TV를 살리기 지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2 개월만 지켜봐 준다면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불교TV 노조원들은 5공 당시 언 론학살의 주범인 허씨가 불교TV 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불신임을 결의했으나, 위기의 TV불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퇴진운동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불교TV를 살려야겠다는 노조원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광고편성 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전 사원들에게 광고수주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목표량의 달 성만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광고편성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오히려 광고주들의 원망과 질책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는 등 불교TV의 공신력 추락만을 초래했다. 프로듀 서 등 전문 제작인력들을 영업사원으로 배치하는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아직까지 지난 7월분을 포함한 8개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8억이라는 부채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임주 건물주는 임차료 지불을 촉구하며 사내 에어컨 시설까지 차단하는 작금의 실정에 허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불교TV를 살리겠다는 어떠한 대안제시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원들의 무한 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뿐이다.

이에 우리는 불교TV가 직면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 ◆**하나, 우리는 불교TV 노동조합의 허문도사장 퇴진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제 허씨는 불교TV 살리기에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불교TV 노조원들은 지금도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질 높은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2천만 불자들에게 죄스러워 하고 있다. 허씨는 조노조원들에게 더 이상 컸는 일은 지속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허씨가 공 언했던 불교TV를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퇴진 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우리는 불교TV의 정상화를 위한 과 중단 및 2천만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영진 및 이사진들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1995년 3월 1일 불교TV가 첫 전파를 발사하던 날,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던가. 세계 최초의 불교 영상 포교매체라는 자긍심으로 가슴벅차지 않았던가. 이미 세계는 정보화시대에 편입한 현실이고 보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불교TV가 파산될 경우 1차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 다. 이에 우리는 아침 이슬처럼 스러질지도 모르는 불교 TV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와 각 종단·불교 TV 이사·불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정령 불교TV는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
- ◆**하나, 우리는 조계종의 전권을 위임받은 중앙종회 btn 특별위원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자 한다.**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btn특위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불교TV를 더 이상 먼 발치서만 지켜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회생책을 내놓고 여러 종단과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해 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불교TV가 파산될 경우 1차적 중용 중심으로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btn특위의 향후 구도라는 말이 불교계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에 우리는 주시하고자 한다. 불교TV는 현실 속 에서 회생될 때 비로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파산 직후 설립은 재정적 측면이나 여론형 성, 또는 정치선상에서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불교TV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